♥ 사랑방 기고문 **가작_ 김 주 혜**

빨리 수술 잘 하라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응급중환자실, 단 5일을 머무르고 가는 곳, 거기가 내가 일하는 일터이다.

환자가 가장 긴급할 때, 가장 좋지 않을 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의사 결정은 삶과 죽음, 향후 환자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 또한 매우 매우 힘들다. 의사는 치료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다. “치료를 해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이런 설명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갔던 환자 2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70대 할아버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배는 딱딱하고, 혈압은 떨어져 강심제를 쓰고 있었다. 피검사는 패혈증의 증거가 넘쳐났다. 담당 과장님은 “대장과 소장이 모두 염증이 심하고, 부어있습니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나, 수술이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그리고 환자 옆에 다가가지도 못하며 안절부절못한다. 그 모습을 본 환자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나는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이것저것 이야기 해 주고 진통제를 더 주며 안심시켜 주려고 했다. 수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 입구로 들어가는 할아버지는 아픈 배를 붙잡고 힘겹게 나에게 “고맙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이렇게 가슴 시린 말이었나? 그에게 나는 마지막으로 맺은 인연이었을 것이다. 따뜻하게 느껴서 다행이었으나 그의 마지막 말이 가족이 아닌 나와의 대화인 것이 안타깝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러웠다. 아직도 수술실로 들어가며 나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안타까운 환자가 왔다.

“ICH, 65세 남자분이고요, 준비 끝나면 바로 중환자실로 올릴게요” 응급실에서 환자 예약전화가 왔다. 환자가 오기 전에 CT 영상을 보니 후두 쪽으로 뇌출혈 크기가 꽤 크다. 설상가상으로 아스피린도 먹었단다. 긴장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장님이 직접 환자를 데리고 입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수술을 안 하면 2~3일 이내로 돌아가시고,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드셨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부인과 아들, 친인척들은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는 눈이 보이지 않을 뿐 의식이 있었다. 불안하지만 침착하려고 하는 할아버지다.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나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다.

“수술하겠습니다.” 보호자가 결정을 했다.

수술은 하면 아마도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머리에게 각종 관이 꽂혀있고, 의식이 깨는지 수일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의식이 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한 채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지금 나와 대화하는 이 할아버지가 10분 뒤에 겪을 일이다. 수술 준비가 끝났다. 내가 일하는 병원은 중환자실과 수술실로 가는 길이 따로 있어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고 바로 수술실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일 수 있는 그의 시간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보호자를 불렀고, 쭈뼛거리는 아들에게 “빨리 수술 잘 하라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고 소리쳤다. 부인과 아들은 짧았지만 강렬하게 환자와 사랑을 전하고 무사히 수술 잘 하고 오라고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 짧은 대화가 그의 마지막 대화였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을 결정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보듬어 주고 싶었다. 이별을 앞둔 가족과 환자들에게 그 짧은, 1분도 안되는 찰나의 순간은 그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한구석에 채워질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접하고 있는 나는 내 직업의 숭고함을 느낀다. 나는 오늘도 기도를 하며 출근을 한다. “주님, 오늘도 제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함께 있을 수 있도록”